물댄동산

The Well-Watered Garden

Vol. 105 | 2024. 04.

귀천(歸天)

천상병(千祥炳)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그를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집 「주막에서」, 1979)

시 이야기

이 시에는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보려는 시인의 유유자적한 인생관을 볼 수 있다. 시인에게는 삶의 어려움도 많았고 거친 인생이었겠지만 그것을 소풍이라 할 만큼 그는 부족함도 집착도 없다. 혹여나 시인이 객기를 부리거나 여유로운 척 술수를 부린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의 담백한 시어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인은 새벽빛과 이슬, 노을빛과 기슭을 대조시키면서, 그리고 손에 손을 잡다가 손짓하는 인생 여정으로 마무리하면서 그의 마지막 하늘 가는 길을 준비하고 준비한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늘 메아리치는 소리가 있다. 시의 3연에 걸쳐 첫 구절마다 들려오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소리다. 구차하고 변덕스럽게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소리 지르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신앙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라는 절정의 기도로 끝을 맺는 시인이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담백하고 꾸밈없는 언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로 노래한 것이 이 시를 거듭거듭 읽게 하는 이유가 된다.

(이주하 편집위원)

시인 천 상 병(千祥炳)
1930년 경상남도 창원 출생
서울대학교 상과대 수학
1952년 『문예』에 시 「강물」, 「갈매기」 추천되어 등단
1993년 소천

발 행 인 박창운
지도목사 이필행
부 장 강영우
부 부 장 박문호
총 무 이상원
회 계 김미진
서 기 박현아

편집위원 곽지예, 김승훈, 김원진, 안주현, 양선미, 이영숙, 이우형, 이주하, 최무진, 허군열
취재기자 왕혜진, 이금환, 이수경, 전용철
스튜디오 우제오, 박효윤
편 집 안지현
발 행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전 화 (053) 253-2615 ~ 7
팩 스 (053) 253-2618
주 소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발 행 일 2024. 04. 07.
홈페이지 www.firstch.org
이 메 일 fch_pub@naver.com

2024년
물댄동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 기자단 선임 및 취재

이금환, 전용철, 이수경, 왕혜진 집사
교회 행사나 기관 및 단체 탐방
(이스트힐, 원로원, 경북노회, 부활동산, 제일평화의집 등)

둘. 열린소리함 운영

본당 로비와 식당 앞 설치
뒷 페이지(2P)에서 상세 설명

셋. 교계 신문 함께 읽기

한국장로신문, 한국기독공보 중 기사 발췌
주요 교계 행사

넷. 따끈따끈한 교회 소식

주일학교, 해외선교사, 남선교회, 여전도회 등 다양한 부서 활동

다섯. 아이들과 성도들의 미소 사진

여섯. 더 많은 분들의 글들을 싣기 위해

원고 분량을 A4 용지 과거1.5에서 1페이지로 변경(물댄동산 2페이지)
한 분당 1년에 최대 2회 가능, 2회 연속은 안됨

성도분들이
보고 싶은 그리고 가지고 싶은
물댄 동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가족의

열린소리함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 중

좋은 점 또는 감사한 점
칭찬하고 싶은 점
긍정적인 면
건의사항 등 을

준비된 용지에 써넣거나
fch_pub@naver.com 에 보내주세요

주관 : 대구제일교회 홍보출판부

본당 로비와
식당 앞에 설치

샬롬증산

통권 제105호
The Well-Watered Garden

권두언	04	박창운 위임목사	주님의 간절한 기도!
	06	이문희 장로	교회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순소개	08	박인현 안수집사	아가페순:순모임은 저에게 은혜입니다!
새가족소개	10	새가족부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새가족글	11	이재홍 성도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교육부	13	윤다은 전도사	초등1부 겨울성경학교 소감문
	14	최재호 집사	초등2부 겨울성경학교 소감문
	15	박가인, 김규리, 장서현 학생	중등부 동계수련회 소감문
	16	손재현 안수집사	고등부 동계수련회 소감문
	18	노정석 청년	청년1-2부 동계수련회 소감문
	19	신진섭 청년	청년1-2부 동계수련회 소감문
목양부	21	이미화 집사	바이블아카데미: 사사기, 오늘을 읽게 하는!
군학원선교부	23	김호덕 안수집사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관리부	24	관리부	깨끗한 교회 만들기 "04월13일 클린 Day"
피택자 교육 소감문	25	이재환 장로	장로의 피택에서 임직까지...
신임교역자 소개	28	이필행 목사	이필행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신임행정실장 소개	30	행정실장 서병호	충성! 신고합니다~
해외선교부	32	이교육 신재명 선교사	이교욱 신재명 캄보디아 선교사 소식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34	홍보출판부	
박사학위 논문	38	홍보출판부	박창운 위임목사 박사학위 논문 영문초록
고것이 알고싶다	40	취재기자	영상통신부 인터뷰
5분독서	42	홍보출판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교계 신문 함께읽기	44	홍보출판부	한국기독공보[사설] / 한국장로신문[논단]
홍보출판부 사역	46	홍보출판부	홍보출판부 "05월12일 사역박람회"
미소사진	47	홍보출판부	
성도의글	48	우정복 원로장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50	김홍석 명예집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52	권종웅 명예집사	나는 지금 노아(Noah)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54	이재율 은퇴안수집사	구약 희년법의 진실과 오해
	56	권혁창 안수집사	누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나?
	58	신성수 안수집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60	이미영 집사	잠의 세계
찬양소개	62	최성민 전도사	야베스의 기도
의료선교부	63	이재정 장로	충동조절이 어려운 당신, 혹시 성인 ADHD?
심리학연재	66	양선미 집사	우리곁의"심리학"[3]:심리치료, 새로운 통찰
열린소리	68	홍보출판부	열린소리함 쪽지, 문화교실 강좌 안내

대구제일교회
박 창 운 위임목사

주님의 간절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주님의 기도를 숙고하며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은 온 힘을 다해 제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을 다하였는지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먼저 시간의 개념을 지닙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제가 대구제일교회에 온 이후로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했던 메시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주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사랑과 기쁘신 뜻대로 말입니다. 이는 해오랜 사랑의 시작을 말해줍니다. 이어 13절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십니다. 영원한 사랑의 보증이라는 의미로, 영원에 이르도록 사랑하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말씀은 사랑의 크기와 정도를 드러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사랑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시지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건임을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주님은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하며 살아가야 할 제자 공동체를 놓고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진심을 얼핏 또 다른 장소에서 발견하길 원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더라(참고, 눅 22:44)."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주님의 기도는 3가지 주제를 드러냅니다. 첫째는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의 예만 들어볼까요? 사단은 급기야 베드로를 무너뜨리려 공격하고, 베드로는 속절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그 자리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를 아셨기에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참고, 눅 22:31-32). 이별의 순간, 주님은 공동체를 위하여, 그들의 안전과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세속의 강포한 생각과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 속으로 급속히 들어오는 것 말입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지 못하는 아둔함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를 지켜 주시도록 말입니다.

주님은 이어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어서 잘 해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도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18절)." 주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모든 피를 흘려 그 피 값으로 사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이어지는 길을 열어 놓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아는 이들을 통해 세상에 십자가의 사랑을 심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 공동체가 세상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 가치를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의 만남에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며 살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며 섬길 기회를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연합이 필요하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 번째로 제자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이 기도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토미 레인이라는 유명한 작가는 '하나님의 드림 팀'이라는 책에서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주님의 기도 중에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의 기도, 그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 됨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글이 주는 묵직한 울림을 감지합니다. 세상은 서로를 향하여 갈라치기를 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 너와 나, 우리와 너희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이에 더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모든 선한 권위마저 부정하게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이와 반대로 이상한 권위가 나라와 공동체를 질식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향하여 주님은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를 사랑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갈등과 힘겨움을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말입니다. 어떤가요?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사랑하고 품고 안아주고 위로하는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퍼져나가는지요?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됨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기를 좋아하시는지요?

주님은 이별의 순간, 제자 공동체와 또 그 뒤를 이어 주님을 믿을 교회 공동체를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키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의 삶을 견실히 살아내고, 무엇보다 하나 되기를 위해 말입니다. 이별의 순간을 앞둔 주님의 마음처럼,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샬롬! | 물댄동산

교회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문희 장로
(당회 서기)

"교회란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교회 내에서의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지만,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선교라고 생각한다.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흩어져 증인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사명(死命)이다. 또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이며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돌아보아야 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머나먼 대구 땅에 와서 청라언덕 「은혜의 정원」에 묻힌 선교사님들의 헌신으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교회에서 선교와 구제를 뺀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다.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군 학원 선교, 사회복지부, 장학구제위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대구제일교회에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한국교회가 사명을 다하려고 저마다 노력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의 정치나 제도가 비민주적이고 사회보다 못하여져서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 지도자들의 변질과 순진한 성도들이 사람에게 세뇌당하여 사람의 교회가 되어가는 대형 교회를 보게 된다. 세상은 이러한 현상들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 마치 이단을 보듯이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국제포럼에서 발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에는 세속화와 물질주의, 목회자의 자질 부족/사리사욕, 양적팽창/외형에 너무 치우침, 자기 교회 중심, 성도들의 실제 생활 방향을 제시 못함 등의 문제점들이 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과 노령화 등 사회문제들과 함께 교회는 체질을 바꾸는 개혁을 하여야 한다. 유럽에는 큰 예배당들이 텅텅 비고 노인 몇 명만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며 교회 건물에는 상가와 술집,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오래전 일이다. 이러한 슬픈 현상이 한국교회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 여러 곳에서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며 긍정적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국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구조로 갱신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선결 과제는 교회를 먼저 바르게 진단하는 일이

다. 무엇이 구습이며 개혁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비판보다 더 어려운 것이 대안 제시다.

당회와 제직회가 통과의례가 아닌 열띤 토론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세미나, 심포지엄 등으로 함께 기도하고 토론하며 더 나은 제일의 미래를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기간 동안 유대인과 그 시대를 친히 개혁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이자 개혁가이셨다.

우리 교회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이다. 믿음의 선배들의 굳건한 신앙의 뿌리 위에 미래세대가 새로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대구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여 기독교적 진리와 사명을 전파하는 교회, 사회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 개인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교회,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남은 2년의 시무 기간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맡은 직임을 다해 교회의 개혁에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염려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한국교회를 걱정합니까? 솔직히 내가 정한다고 한국교회가 달라집니까? 내가 발로 뛴다고 교단이 달라집니까? 골치 아프게 뭐하러 그럽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한흠 목사님의 저서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중에서

우리순 이야기 **아가페순**

순모임은 저에게 은혜입니다!

박 인 현 안수집사

1985년 우리 교회에 첫 출석하여 지금까지 40년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아직도 저의 믿음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2017년 1월 아가페순장으로부터 함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당시 정년을 4~5년 앞두고 교직 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점이라 권유를 받고 승낙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리 열성적으로 참여할 여유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2018년부터 순모임이 좀 더 빈번해지고, 정례화되면서 순원님들과의 교제도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친목도 도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말씀 묵상도 조금씩 진지하고 깊이가 더해 갔습니다. 특히 순원님들 중 장로님들이나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학교를 다니며 믿음으로 단련된 순원님들의 삶을 통한 적용은 저에게는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진리를 깨달으며 공감이 갈 때는 새로운 뭔가를 알게 되었다는 기분이 들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울 때도 있었습니다.

2021년 은퇴를 하고 2022년 타 대학에 연구원으로 잠시 머물던 그해 연말, 그곳에서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위기 극복 능력 기르기>란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의 전체적인 줄기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하든지 인간적인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는 성경 말씀 속에 있으므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 말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실마리를 찾고 극복할 능력을 갖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그 설교 속 예화는 마치 저를 지목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저를 위해 뭔가 감추어 두었던 비밀병기나 마치 보물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의 열쇠를 찾기 위한 방법을 실천하고자 우리 아가페 순을 떠올렸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적당히 아는 척했던 순모임에서의 말씀 묵상 시간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부터는 기왕에 순원들이 나누는 말씀 묵상 시간이니 더욱 열심히 다른 순원님들의 말씀 묵상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시간이 쌓이면서 현재 우리 순의 말씀 묵상 나눔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자 우리 순원들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순모임을 통한 말씀 묵상 나눔을 실천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다음 세 가지로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 자신의 묵상과 다른 순원들의 묵상을 공유

하고 서로 나눔으로써 말씀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적용되는 면을 진솔하게 교환하고 소통함으로써, 저의 상황과 형편에 고정되어 있던 인식에 다양한 삶을 더하여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아주 조금이라도 넓고 깊게 이해하면서 순종의 가치를 깨달아 가는 것이 제가 받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순모임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순원님들이 소중하고 귀한 형제라는 생각이 순원님들에게서 다른 성도님들에게로 옮겨가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봉사하는 모임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전과는 달리 진정 반갑고 귀한 성도님들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진정한 형제자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이 저에게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옴을 느낍니다. 이 또한 우리 순원님 한분 한분을 통하여 제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순모임에서 사랑과 순종을 배워감으로써 대인관계가 열리고, 이것이 곧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여 과거보다는 훨씬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매번 모이는 순모임 말씀 묵상과 나눔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고 나누는 말씀이 사랑과 순종(겸손)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사랑과 순종은 늘 강조되어 은연중에 우리에게 사랑과 순종이 아직은 미약하나마 실천되어 가고 있음을 순모임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성도들, 작은 사랑이나마 실천하고픈 봉사부서 등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작은 겨자씨가 순을 통한 말씀의 묵상과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런 순모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지를 갖게 해 준 것도 제가 받은 은혜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기록인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은,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 있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우리가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다양한 생각과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묵상을 서로 나눌 때 말씀의 진리는 더욱 확실하게 다가올 것이라 믿으며, 우리 교회의 순모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샬렘동산

New family welcome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서성규, 권효정 _ 1교구 19구역

박춘호, 문진숙 _ 1교구 5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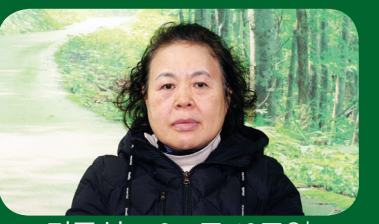
이종언 _ 3교구 5구역

김다솜 _ 2교구 25구역

김진환 _ 1교구 15구역

심규민 _ 2교구 24구역

이형민 _4교구 5구역


김금선 _ 2교구 10구역

강승태 _ 2교구 5구역

오나은, 신병수 _4교구 10구역

박주은, 신민영 _ 1교구 1구역

이삭, 박요안나 _ 1교구 1구역

태윤식, 심진화 _ 1교구 2구역

문현조 _ 4교구 17구역

김용수 _ 2교구 19구역

김미혜 _ 1교구 14구역

홍경순 _ 4교구 34구역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재홍 성도

제가 제일교회에 처음 다니게 된 시기는 작년 겨울 때쯤이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렸는데요.

처음에는 여자 친구의 권유로 여러 다른 교회에도 다녀보고 했지만 가장 마음 편안하고 말씀 이해가 조금이나마 쉬운 교회가 제일교회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는, 제가 인터넷 강의를 봐오며 자란 세대라 그런지... 인터넷 강의를 보듯 원문과 비교하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가르쳐주시는 그런 설교방식이 저한테는 조금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 안 좋은 편견이 있었고 근거 있는 믿음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처음에는 억지로 믿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이 이해되는 척하고, 벌써부터 교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식 종교'를 가졌었습니다. 여자 친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어릴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온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여자 친구는 기독교 집안의 분위기나 사고방식을 좋아했고, 저는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 친구가 좋아서 교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마침 코로나라는 좋은 핑곗거리가 생겨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시간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여자 친구와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으로 기독교에 대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소설이라기에는 너무 정교한 데다가 역사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믿지 않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더불어 다리가 불편해 혼자 힘으로는 집 밖으로는 돌아다닐 수 없는 동생을 데리고 본격적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다리가 불편했기에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인지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재밌어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

을 보니 제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교회에 다니다 보니 새가족부에 등록할 마음도 생기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볼 마음 또한 생겼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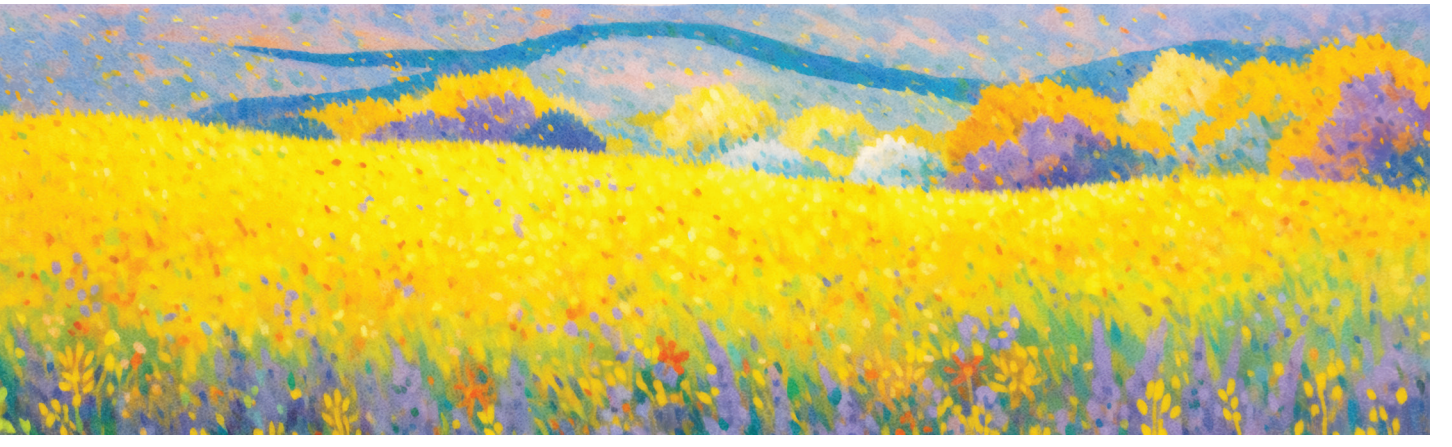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니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알 수 없는 감동이나 가슴 벅찬 느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험과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점점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와 제 동생은 신실한 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와 동생은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좋습니다.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와 제 동생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신 교회의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여자 친구와 함께 성경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종상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초등1부(1~3학년)
겨울성경학교

뜻을 세우는 아이들!

윤다은 전도사
(초등 1부)

초등1부 겨울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은 교회에서 모여 외부 활동부터 먼저 했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놀 때 종종 자기 뜻대로 되지 않거나 친구랑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선생님들의 섬김과 아이들이 서로 양보하는 모습들을 보며 제가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성경 코너학습을 할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울 때도 서로 도와주며 세워주며 함께 하나가 되어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등 1부 친구들의 삶의 예배를 보며,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배 시간, 찬양 시간에 아이들의 고백과 선생님들의 섬김을 보며 제게도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초등1부가 하나의 교회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과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초등1부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올댓풍상

최재호 집사
(초등2부 교사)

초등2부(4~6학년) 겨울성경학교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대구제일교회 초등2부 겨울성경학교(김주광 전도사/김정훈 부장)는 2024년 2월 3일(토)부터 4일(일)까지 100주년 기념관 7층 초등2부실에서 열렸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요!"이며, 주제 말씀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신명기 8:6)이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도 제목 외 6가지 내용으로 모든 교사들이 릴레이 기도하며 준비를 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이 회복시키는 경험을 위해 말씀 묵상의 필요성과 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도사님께서 사전에 안내해 주어 성경학교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첫째날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읽고 생각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죽음의 음산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리라.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이 혼자 있을 때,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고, 이럴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 큰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인데 이때 다윗과 같이 평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앞으로도 체험해 갔으면 한다.

둘째날 시편 100편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으로 외쳐라~" 묵상하였다. 친구들은 유명 가수의 노래와 동영상 짧은 밈의 노래들은 중독성이 있어 좋다고 하며 모두 잘 따라 불렀다. 반면 좋아하는 찬양은 주로 예배 시간에 불렀던 노래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와중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조용히 가사를 음미해 보니 친구들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믿음이 감사하며 마음 한구석이 뜨거웠다. 한편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온 땅을 향해 기쁨으로 외치라고 했을까?, 외칠 수 있었을까?' 우리 아이들과 나도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을까? 물음을 자신과 아이들에게 던졌다.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성경학교의 주제와 같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찬양하고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초등 2부 아이들과 봉사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삶이 말씀으로 회복되고 세상을 향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늘 함께 울려 퍼지기를 기도한다. 솔데옹상

중등부 동계수련회 릴레이 소감문

수련회 시작은 반 선생님과 같은 조 친구들과 함께 청라언덕과 약전골목 일대를 다니며 사진 찍는 미션을 했다. 그리고 교회에 돌아와서 레크레이션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초등3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았다. 놀이터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예인이 언니와 규연이 오빠한테 적발되어 다시 레크레이션으로 돌아갔다. 이번 수련회 때 언니, 오빠들과 친해져서 좋았다. 레크레이션에서는 컬링 게임이 특히 재미있었고 눈썰매장에서 썰매 타는 게 재미있었다. (박가인)

수련회 시작으로 조별 미션을 했다. 조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동성로에서 맛있는 밥을 먹어서 좋았지만 미션을 다 완성하진 못했다. 교회에 돌아와서는 컬링과 레크레이션을 했고 이후에는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았다. 썰매장에서 썰매를 타는 것도 재미있었지만 남자애들이랑 했던 눈싸움과 간식을 먹었던 것이 좋았다. (김규리)

점심부터 시작된 미션과 레크레이션이 끝나고 저녁에 교회 식당에서 고기를 구워먹었다. 선생님들이 직접 구워주셔서 맛있게 먹었다. 저녁을 먹고 4층 놀이터에서 고등부, 청년부 언니 오빠들과 함께 놀았다. 수련회 저녁집회로 오셨던 선교사님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나도 축구를 좋아해 내적 친밀감이 들었었다. 수련회를 위해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장서현)

고등부 동계수련회

고등부, 성경 속 신앙의 영웅들을 탐구하다

손 재 현 안수집사
(고등부 부장)

고등부는 2024년 동계수련회를 우리 교회 목표인 '치유'를 주제로 1월 18일~20일 3일간 밀양 보건대학교 보현연수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고등부 학생 24명, 청년 찬양팀 10명, 이정이 목사님 외 교사 21명, 총 56이 참석하였으며, 이번 동계수련회는 우리 교회 출신인 김세련 목사님(청도 정상교회 담임)을 모시고 성경 인물을 통해 학생들이 성경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날, 11시경에 교회를 출발하여 수련원에 12시 도착, 여는 예배를 시작으로 수련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로 서먹한 관계를 레크레이션으로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강사 목사님의 설명과 고등부 선생님들의 지도로 '아브라함'에 대해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레크레이션과 성경공부로 인해 허기진 배를 채우고, 다시 두 번째 성경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탐구하였습니다. 요셉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인 청년부 찬양팀이 이끈 찬양집회는 찬양을 통해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 학생들은 기상 후 QT로 아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방별로 아침식사를 하였는데, 보현 연수원의 장점은 각 방마다 취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별로 간단한 식사 후 세 번째 인물인 '다니엘'을 탐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첫째

날과 동일하게 강사 목사님께서 인물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신 후 엄기정 장로님, 김태호 집사님, 김동현 집사님, 최무진 장로님이 4개의 반을 각기 맡아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성경인물 탐구에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색다른 이벤트로 방별 요리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이 신앙훈련과 더불어 요리를 통해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정에서는 하염없는 엄마 바라기일지 몰라도 이번 요리 경연대회에서는 유명 쉐프 못지않은 실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최고의 음식으로 선정된 요리는 '부대찌개'였고, 모두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정이 목사님과 청년부 찬양팀의 인도로 뜨거운 찬양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고등부와 친구와 나를 위해 뜨겁게 기도도 하였습니다. 이번 찬양집회를 통해 신앙적으로 한 층 더 성장해 가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이정이 목사님의 인도로 마침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련회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나마 저의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름과 겨울 방학 때마다 수련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입시 전쟁으로 인해 수련회에 참석해서 신앙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힘든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학생들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교회의 아낌없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도록 교회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고등부를 비롯해 다음 세대가 세상의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수련회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 쌀렌홍삼

청년 1-2부 동계수련회

품 안에서 내려놓을 용기

노정석 청년

길었던 타지 생활을 마치고 나서 몸담게 된 제일교회 청년부는 내가 기억하던 많은 한국의 공동체들과 사뭇 달랐다. 이제는 내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 된 축복송과 인사송이지만, 교회에 처음 온 새가족들만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어색함이 내게도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친절하고 순수해서 도리어 낯선 그 느낌. 늘 인력 부족에 시달리던 한인 교회 찬양팀에서 섬겨왔던 내게, 순수한 기쁨과 축복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주 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은 그만큼이나 오래 못 본 친구의 얼굴 같았다. 그런 낯선 감정들을 몇 주간에 걸쳐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졌고, 내게 교회라는 공간이 늘 그랬던 것처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읽으면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도 자라났다. 선뜻 수련회 참석을 위해 연가를 쓸 마음이 생겼던 것도, 망설임보다 이 사람들 모두와 더욱 긴밀해지고 싶다는 확신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막 도착했는데 신문지로 만든 옷 만들어서 패션쇼를 하고 있는 너희를 보니까 찬양 가사가 생각나더라. 청년의 시절 지날 때, 하는 그 찬양 있잖아. 정말 청년이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아. 이때가 지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되게 좋았어."

둘째 날 늦게 합류한 같은 조 형제가, 삼일절 아침부터 예정에 없던 근무를 하고 도착해서 내게 이런 말을 문득 건넸다. 마침 시상대에 박스와 신문지로 만든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올라서고 있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많이 늙어서도 같은 곳에서 신문지 패션쇼를 열고 있는 우리들을 떠올렸다. 그렇지, 거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 나는 다 큰 청년들이 산속 어딘가에 모여서 테이프와 신문지만으로 정말 즐겁게 놀고 있는 그 유치함이 순도 높은 허망함으로 바뀌는 순간에 대해서 생각했다. 나이가 얼마나 더 들면 이걸 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될까? 한 시간 동안 방패 하나를 낑낑거리며 만들고 있던 내 모습이 문득 아깝고 소중해졌다.

지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이런 감정을 함께할 수 있고, 신앙으로 만들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속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덧대어 왔던 껍데기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아닐까!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는, 아주 오래 알고 지내던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처음으로 그 가사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 같다.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음성 같다고 하시던 어릴 적 은사님의 말처럼, 그 순간 품 공동체는 서로의 안에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웃기지만 우습지 않고, 즐겁지만 즐기기 위하여 행하지 않는, 순수한 기쁨과 찬양의 깊음 가운데 서로 섬기는 청년부 안에서 더욱 많은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 | 쌀렘풍상

청년 1-2부 동계수련회

하나님의 시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신 진 섭 청년

하나님의 은혜와 대구제일교회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2박 3일간 진행된 청년부 수련회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2월 29일부터 3월 1일간 진행된 수련회 준비 과정에서 매주 모여 열정과 단합된 마음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던 1, 2부 청년부 임원분들과, 수련회에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연습과 노력으로 수고해 주신 찬양, 워십팀, 수련회 준비를 위해 기도해 주신 청년부 지체들과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니셨다면 이번과 같은 은혜로운 수련회가 준비되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한다.

나는 수련회 준비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28일에 선발대로 수련회에 필요한 장비를 선발팀과 함께 수련원에 가지고 갔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작은 힘으로라도 예배와 수련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청년부 신입생에도 불구하고 지체할 것 없이 선발대로 가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 비록 무겁고 많은 장비들 때문에 육체의 수고가 크게 따르긴 했지만, 나의 방식대로 섬길 수 있어서 기뻤다. 또한 이번 청년부 표어처럼 청년부 형들과 먼저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은 힐링 그 자체였다. 본격적인 수련회 날에 모두가 수련원 본당에 도착한 순간, 청년부의 활기와 분위기에 나도 모르게 남은 2박 3일 동안 지낼 시간이 설레기 시작했다.

한편으로는, 중고등부 수련회만 해보다가 강의시간이 무지막지하게 긴 수련회의 시간표를 보니 수련회 일정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심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성경 개관을 큰 틀로 진행해 주신 서성준 목사님의 강의는 나의 근심을 사라지게 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오신 역사를 들으니 내 눈에

말씀이 달라져 보였다.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던 내용, 읽어도 잘 모르겠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행하신 일들로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에게 내린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이킬 기회와 생각들을 주신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분의 뜻은 사람의 눈으로 온전히 다 알 수 없으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생각과 그분의 행하심을 알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단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말 그대로 성경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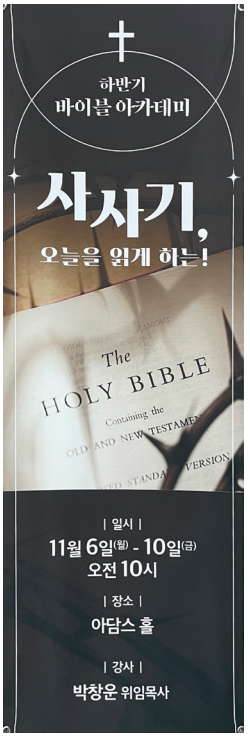
워십팀으로 참여해 수련회 전부터 연습을 해 온 나는 기대되는 와중에도 두려움이 크기도 했다. 처음 참여해보는 청년부 수련회에 바로 워십팀에 참여하니 부담감도 적지 않았다. 찬양팀과 맞춰보면서 연습을 진행했는데 어려운 안무와 헷갈리는 타이밍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거듭된 연습으로 찬양팀과 함께 집회를 시작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저녁은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느끼게 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워십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내가 내 목과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열정적으로 춤출 수 있었다. 또한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던 청년부 지체들도, 어느새 다들 열정을 다해 춤추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서 잊히지 않는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춤추며 노래할 때, 모든 지체들이 활짝 웃으며 그 순간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린 비로소 온 맘을 다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위대하신 주를 같이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다 함께 있던 공간이 사람이 많아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그 공간이 빽빽하게 채워진 느낌을 받았다. 이번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나에겐 믿음의 시작이자 주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말씀과 나의 거리를 한층 더 가까워지게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사랑을 통해 주님의 뜻을 다시 이루어 갈 힘을 주셨으며, 내가 목 놓아 기도로 부르짖고,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 올려드린 그 시간들. 내가 커가면서도 항상 내게 큰 힘이 될 것 같은 시간을 허락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4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써주신 분들과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 골텐풍상

바이블아카데미

사사기, 오늘을 읽게 하는!

이미화 집사
(목양부 총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사사기 여호수아 시대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으로 직접 통치하던 신정 시대였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본 세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 세대의 앞날을 짐작해 본다. 갈수록...더욱더, 타락하는 사사기의 패턴.

1. 전쟁 실패, 영적타락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유다 자손이 헤렘(가나안족속을 진멸하라) 전쟁을 시작한다.

승승장구하던 유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셔서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무기에 대한 두려움) 쫓아내지 못하고 타협함으로 승리에서 실패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거늘, 가나안을 지배하던 이스라엘은 되려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스라엘에게 남은 건 이제 영적 타락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2세대 전쟁 실패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바알을 섬기며 끝내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이방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충격적인 상황에 이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신랑 왕이시며 우리를 이방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면 이방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중 언약의 하나님. 이방을 통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사사기의 패턴 범죄-진노-압제-회개 간구-구원 다시 범죄를 반복하며 더욱더 악해져 간다. 지금의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나. 하나님께 범죄하여 진노의 대상인가, 죄를 깨닫고 아니 깊은 깨달음은 없더라도 삶의 곤고함으로 인해 나를 돌아보고 있나? 그리하여 회개와 간구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나? 그 기한이 다 차서 이제 구원을 받았나?

중요한 것은 재범죄에 대한 경계의 마음이다. 이제 이방과의 전쟁을 위해 사사들을 보내주신다.

JUDGES

2. 사사들에게도 나타나는 하양 구조

(1) 웃니엘

유다 족속 흠결 없는 전형적인 사사

(2) 에훗

당시 장애인 취급받던 왼손잡이 사사.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닌 술수로 왕을 죽임. 강력한 적이 아니거나 이미 지배했었던 약한 나라들을 통해 징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들은 별 것 아닌 존재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이 큰 존재로 보이게 된다. 중요한 영적 원리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스리며 과한 소모가 없으나 그렇지 못할 땐 문제에 눌려 내 마음이 악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

(3) 바락

여호와가 아닌 드보라를 의지한 사사

(4) 기드온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 열망을 가진 사사

하지만 그 가정이 우상의 본거지

하나님께 늘 조건을 다는 신뢰 없음의 대명사

(5) 입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 당시 첩들도 유산을 받았으나 기생의 아들은 법적 지위가 없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신 그모스의 영향을 받아 하나뿐인 딸을 번제로 드린 무지한 사사.

(6) 삼손

나실인의 의미가 무색할 만큼 엉망으로 살아가는 삼손(술잔치 사체접촉 머리털 잘림, 블레셋 여인과 결혼). 사사들이 이렇다면 사사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삿11:27 입다의 말을 통해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사사 참된 사사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끊임없이 배신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백성들, 또 배신할 줄 알면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결국 구원은 우리들의 회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달렸다.

3. 영적 타락, 잘못된 전쟁

(1)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타락

믿음의 집안임에도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복을 구함

(2) 제사장의 타락

돈을 추구했던 제사장으로 개인집의 고용제의를 기뻐함

(3) 단지파

유익을 위해 타인을 짓밟는다.

(4) 첩을 가진 레위인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춘 간교한 레위인의 말, 이를 믿은 이스라엘 총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족을 죽이는 전쟁이 시작된다. 결국엔 한 지파가 사라지는 비극. 이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 탓을 하는 죄의 습성이다.

사사기 핵심구절(삿21: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이 모든 비극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결과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죄를 숨기고 타협하며 말씀도 자의적 편의적 해석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협상하며 내 좋을 대로 내 편한 대로 살고 만다.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왕이심을 깨닫는 이 진리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깨닫고 뜻을 이루어 가며 이제는 받기만 하는 어린 자녀가 아니라 장성한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기쁘게도 해드려야 한다. 내 삶의 왕이신 하나님 깊이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 골든종상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꿈!

김 호 덕 안수집사
(군학원선교부 부부장)

제가 군 학원 선교부를 섬긴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제대로 봉사를 못했지만 최진연 부장 장로님의 운영 원칙이(1년에 한 번씩은 방문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군 학원 선교부에서 지원하는 다섯 교회(영천 1117공병단 충성교회, 50사단 강철교회, 경산 707신속대응여단 독수리교회, 경산 국군대구병원 소망교회, 영천 수송교육대 이수교회)에서 방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3년 11월 12일에는 영천 1117 공병단 충성교회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를 군학원선교부에서 주관하여 장병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진연 부장 장로님의 대표기도와 이태연 목사님의 장병들 눈높이에 맞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아이노스 중창단이 웅장한 남성 중창단의 멋진 찬양으로 장병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마무리 특별찬양으로 호산나 찬양대의 솔리스트 강수연 성도님의 천상의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장병들과 교우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되새겨 봅니다.

24년 올 한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 학원 선교부, 섬기는 다섯 교회 장병들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는 군 학원 선교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장병들이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 샬롬동산

깨끗한 교회 만들기 "04월 13일 클린 Day"

1 개요

가. 각 부서별 불필요 물품 및 노화된 물품 등

나. 과거 사용 후 교체된 물품의 보관 등

2 현실태 및 문제점

가. 장기 보관으로 인한 보관 공간 부족

나. 노화 물품 및 불필요 물품으로 인한 위생불량 및 미관 훼손

다. 비상구 및 계단 등 통로에 방치로 인한 위험성

3 추진일정 및 계획

가. 3월 24일 ~ 4월 7일

1) 부서별 불필요 및 노후 물품 선별 작업 진행

2) 부서별 물품관리대장 수정

나. 클린데이: 4월 13일(토) 09시~12시

1) 폐품 수거함 비치(주차 부근)

3) 부서별 인원 협조 : 청년 1~3부, 남선교회, 안수집사회 등

4 기타사항

가. 수거대상 물품 : 과거 사용 후 방치 및 파손된 물품 등

(예, 지하주차장 장의자, 사용 기간 경과 물품, 부서진 기구 등)

나. 문서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정 장소에 정리

다. 각 부서의 폐기 물품은 각 부서에서 4월 13일 당일 12시이전 배출

장로의 피택에서 임직까지...

이재환 장로
(경조부 부장)

먼저 부족한 사람을 택하여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장로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 또한 새로운 부르심을 허락하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1987년 여름, 약전골목 구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청년부에 참석하며 제일교회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던 때를 떠올립니다. 이번 교육 중 필독서인 '한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의 제자 사역의 모습처럼, 당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던 터라 구원을 나의 의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 구원의 확신이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멋진 선배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하나님이 제 구원자 되시며, 나의 생활과 무관하게 한번 맺어진 언약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내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유년기 가난한 시절, 풍요로운 삶을 꿈꾸며 세상의 성공이 나의 목표가 되어 홀로서기를 하고 있던 차에, 믿음의 선배님을 통해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셨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멀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생활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높이만큼 나의 도움과 나눔을 필요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신앙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6년을 지나오면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말씀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고, 매 주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과 교제함으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되었으며 제직 부서에서 주어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4일~7월 31일에 걸쳐 노회에서 실시한 피택 항존직 교육에서는 직분자의 소명과 성경의 이해, 교회의 역사 등 항존직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가 교회와 사회에서 본이 되는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부분을 교육하다 보니 큰 줄기 위주로 구성되었고, 타 교회 목사님의 강의와 타 교회 피택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서로 섬기는 모습이 아름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장로고시 중 성경 고사를 면제받기 위해

총회 교육 훈련처에서 실시하는 성경통신과 중급자 과정의 교제를 통하여, 신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전개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끝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사랑 속에 들어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교육은 9월 3일 ~ 11월 2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담임목사님께서 추천하신 책(한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순전한 기독교, 하나님의 임재연습, 장로의 헌신과 영광)을 읽으며 내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 교회 선배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으로 새로운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감사하였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 순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던 로렌스 형제의 모습을 통해 저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궁극적인 악으로 이어져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C.S. 루이스의 말씀과 내가 늘 깨어 있어 자비로운 겸손을 유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와닿았으며 그렇게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룹 토론을 통해서는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피택자들과 함께 하면서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존중하고 통합함으로써 더 풍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교육을 통하여 130년 전 소망이 없던 대구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의 많은 교회가 열매 맺으며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며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사안이든 모교회로서 장자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늘 신중하고 바르게 집행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 시설 현황 및 부서 탐방과 교회 실무 행정교육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이해와 주인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교육은 저의 부족함을 실감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큰 변화와 성장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피택자 교육은 우리 신앙 공동체와 교회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고, 신구약 성경 속에서 보여준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교회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크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나를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이웃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감당하여야 역할에 대한 통찰력과 담임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데에 필요한 지혜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신 목사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겹 줄은 끊어지지 않듯, 21명의 피택자들이 더 깊은 성도의 교제와 우리에게 주어진 교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교회
가슴이 뛰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선교와 나눔의 교회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회를 섬기기 위한 사명을 함께 고민하며 공유하는 과정은 교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고, 협력과 나눔은 저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함께한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교회, 가슴이 뛰는 교회,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선교와 나눔의 교회, 소외되고 연약한 자를 돕는 교회. 어린이들의 순수함과 창의성, 청년의 열정과 혁신적 사고와 중년의 노련함과 노년의 지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이 이뤄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디딤돌이 되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으며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지금까지는 잘 보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겠으며, 구별된 삶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믿음이 성숙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더욱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대구제일교회가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에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 동안 세상 가치관의 거친 비바람과 파도에 공동체가 스크럼을 짜고 맞서고 이겨나가며, 서로 짐을 나눠서 지고 세워주는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함께 힘을 합쳐 고난을 극복하고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를 간구합니다. | 쓸렌홍삼

이필행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필 행 목사

사역_ 1교구, 홍보출판부, 주차봉사부, 사회복지부, 경조부, 동산무지개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월부터 대구제일교회에 부임하게 된 이필행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대구제일교회에 목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자라나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에 대구를 떠나 대학교와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로 부르심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 제주로 이동하다가 20년 만에 다시 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되었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정감있게 들리고 익숙한 거리의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갔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벧엘로 부르신 것처럼 저도 다시 대구로 부르셨다는 은혜의 말씀이 묵상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교회를 섬기길 원합니다.

저와 아내는 예섬(초5), 건율(초3), 건욱(6세) 세 아이와 함께 우당탕탕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출생지가 모두 다릅니다. 첫째 예섬이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둘째 건율이는 남양주에서, 막내 건욱이는 제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각각 태어난 곳이 다른 것처럼 각각의 성격도 취향도 다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낳았음에도 이런 각각의 개성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만드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는 조금 더 친근하고 다정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만, 우리 집에는 아들 셋이 있다는 아내의 말처럼 부족하고 철없는 가장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철없는 저와 아이들의 재롱으로 저희 가정은 언제나 유머와 웃음이 넘치고 서로 보듬고 응원합니다. 똘똘 뭉쳐서 서로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지역을 옮기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역지는 제주도였습니다. 제주영락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주도 사람들의 무뚝뚝함 속에 보이는 깊은 정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실수하고 부족해도 참아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던 성도님들의 한없는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좋은 성도들과 함께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쉼을 누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함덕해수욕장과 사려니숲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족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제일교회 오기 전 사역했던 부천 복된교회도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원미동 사람들이란 소설처럼 서민의 깊은 정취가 묻어난 복된교회는 항상 순박하고 정감있게 다가오시는 성도님과 함께 깊은 된장찌개 같은 목회를 하며 보냈습니다.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만날 수 없어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저를 더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셨던 성도님들의 사랑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런 좋은 교회에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목회하다가 대구제일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에 처음 봤던 인상은 멋진 예배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가진 교회답게 교회는 오랜 지역의 양반 같은 모습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저는 지금까지 유지하고 키워왔던 전통의 올곧은 신앙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수고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인격적인 담임목사님의 깊이 있는 말씀과 목회 철학을 배우며 저도 더 성숙한 목회자 성장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저희 가정이 이곳 대구에서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대구제일교회에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열정으로 신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제일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푸근함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 빌덴홍삼

충성! 신고합니다~

행정실장 서 병 호

충성! 신고합니다. 대구제일교회 행정실장으로 보직을 명 받은 서병호라고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한없이 부족한 저를 이곳, 대구제일교회로 보내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해의 바다가 바로 보이는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대한 꿈이 있어 장교로 임관하였으며,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여 딸 둘을 낳아 신앙 안에서 바르게 키웠으며,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수원에서 각자의 직장과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가정처럼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집안에서 자란 저의 믿음의 시작은 고향 집에서 걸어서 30분쯤 가야 하는 시골교회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 주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던 저에게 주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군에 입대 후 교육 중에 동기생으로부터 같이 교회 가자고 권유를 받아 한번 두번 같이 가다 보니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주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관 후에 최전방 전선에서 근무하다 보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교회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소대장 보직을 마치고 부산에 있는 병과학교 교육을 받는 도중 우연히 지금의 아내이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던 아내와 2년여간의 교제 후 결혼하면서 아내와 함께 군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32년여간 군 생활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마다 연약하게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고, 그 경험을 통하여 저의 믿음이 조금씩 견고해졌습니다. 주님을 몰랐던 우리 가족은 4남매 중 형님과 저는 장로로서 그리고 며느리는 권사로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섬기는 믿음의 1세대가 되었습니다.

군 간부로서 성장하면서 장병의 신앙 전력화

의 중요성을 깨달아 군종 목사님과 함께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군 선교사역에 힘을 보태기 시작하였습니다. 군 특성상 1~2년 단위로 부대를 옮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형제들과 같이 라면과 계란 후라이를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역한 형제로부터 전화나 문자가 올 때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 환경도 종교자유 등 사회적인 영향과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막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고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의 군 교회 섬김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파도교회에서 예배부장과 재정부장으로 민간교회와 협력하여 신교대대 세례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외 다수의 군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였으며, 이라크 자이툰부대 교회에서 재정부장, 사령탑교회에서 신우부장, 백두산교회에서 관리부장과 재정부장, 계룡대 본부교회에서 새가족부, 무열대교회에서 관리부장, 친교부장, 예배부장, 재정부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직분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백두산교회에서 '10년 11월에 안수집사를, 대구 무열대교회에서 22년 10월에 장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전역과 동시에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길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도중에 130년 역사의 대구제일교회 행정실장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설물 관리와 인적자원 관리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확신과 교회를 섬길 특별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대구제일교회 행정실장으로서 지금까지 준비한 경험과 자격증 등 능력을 바탕으로 발로 뛰며 답을 찾는 실무형 행정실장으로서 교역자, 교인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직원들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며 관리하고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교회 행정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달란홍삼

이교욱 신재명
캄보디아 선교사 소식

이교육 신재명 선교사

안녕하세요, 이교욱 선교사입니다. 2006년 6월 25일 대구제일교회에서 파송 받고 기독교 인구 1%인 캄보디아에 와서 사역한 지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4년은 언어 공부와 더불어 위사이 전도사를 만나서 기독교 인구 0.2%인 시엠립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사 사역하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후 12년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캄장신) 교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은 다시 시엠립에서 캄장신 분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장로교 북서부 시찰장으로서 교회를 순방하며 신학생을 주의 일꾼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신재명 선교사는 경기도와 프놈펜에서 캄보디아인 교회 개척해 왔으나 2009년 발병한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을 거의 잃은 후에는 상담 공부를 하며 상담 선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선교에 사용되고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88년 이래 지금까지 36년간 선교사로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8월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선교사로서의 마지막 기간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난 캄보디아에서의 18년간 자녀들이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첫째 자녀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다니면서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 출판하는 일을 하며 문학선교를 시작했습니다(미국과 영국에서 '아몬드', '달러구트 꿈의 백화점' 출간됨). 두 번째 자녀는 시각 지적 중복 장애자이지만 색소폰 연주로서 저의 선교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대학을 졸업한 후 박사과정을 밟으며 이후 수학 교수로서 캠퍼스선교를 꿈꾸고 있습니다. 넷째는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역 중인 시엠립 캄장신 분교는 2017년부터 프놈펜의 교수들이 와서 강의하는 형태인 분원으로 시작되었으나 코비드 19 기간에 시엠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연합하여 건축을 시작하여 2022년 12월에 완공한후에는 시엠립에 상주하는 교수들이 항시 강의하는 분교로 발전하였습니다. 2024년 현재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주간 학생은 26명, 야간 학생은 7명이 주의

사역자로 양육되고 있습니다. 제가 분교장으로 네 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이 분교에서 사역하는데 이 교수님 중 한 분이 캄보디아 장로교 북서지역 최초의 목사이자 저의 17년 동역자 위사이 교수입니다. 그리고 17년 전 이 위사이 목사와 함께 개척한 덤다엑 새소망교회는 올해부터 그 어려운 자립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사역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월5일날 한국에서 병가중인 아내와 둘째 기선이가 시엠립에 왔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랫동안 중지된 가족 연합사역을 3주간 실행하였습니다. 저는 이전과 동일하게 한 주 20시간의 강의를 소화하였고, 아내는 매우 제한된 시야와 희미하게 보이는 시력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상담하였으며, 기선이는 채플과 모든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색소폰으로 연주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기선이에 대한 기가 막히는 간증과 연주를 보면서 울었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은 학생들이 사역하는 오지 현장에 가서 연주하고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한 일군 양성의 통로로 우리 가족의 삶과 사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도와 매주 5개의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한 학생이 말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아무 도움 없이 홀로 시골 오지 교회를 개척했던 한 신학생이 말합니다. 저의 삶과 사역에서 예수님이 보인다고….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 쌀렌홍상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4.01.01. 송구 영신예배

2024.01.05. 특별새벽기도회

2024.01.07. 최준혁 첫출석
(부-최명훈 성도, 모-김다혜 성도)

2024.01.14. 신임서리집사 교육

2024.01.14. 공동의회

2024.02.21. 여전도회 주일 헌신예배

2024.02.23. 학부모와 함께하는 기도회

2024.02.24. 순장개강수련회

사진으로 보는 제일소식

2024.02.25. 3.1절 기념 감사예배, 성찬식

2024.02.27. 구역장모임 개강

2024.03.03. 중등부 역사관 탐방

2024.03.03. 교회학교 3.1만세운동 재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라 사랑
100주년기념관
식당

READING FILMS ABOUT THE THEME OF AN ELDER'S DEATH FROM A CHRISTIAN WORLDVIEW AND ITS PASTORAL APPL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AMOUR AND MY LOVER, DON'T CROSS THAT RIVER*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CHANG WOON PARK

FEBRUARY 2018

Abstract

This paper aims to read films via a Christian worldview and apply that reading in a pastoral ministry. It gives special attention to two films: Amour and My Lover, Don 't Cross that River, as they are outstanding films that ask core questions about human death, and are thereby useful for examining how films and Christian worldview deal with the subject of death. To achieve its purpose, this paper first observes the films aesthetically and then critically re-reads them from a Christian worldview. This paper uses questions regarding films suggested by Robert Johnston as well as inductive Bible study methodology to pursue its goal. This methodology is appropriate for carefully examining the films regarding their use of euphemisms, symbolism, plot, characters, and mood.

The film Amour discusses love as death; love is to euthanize a beloved person dying in pain. This film euphemizes death as a door, jacket, window, and pigeon, and tackles the problem of death through embedded anecdotes. The euthanizing of Anne to end her pain is described as love, while George's nursing efforts out of love for Anne are regarded as violence. The film My Lover, Don 't Cross that River shows how an elderly couple close to death treat one another in love. In particular, the film displays the existence of love amid the practical reality of individualism, which has eroded love in the world. The couple's dogs, Kid and Gong-soon, function as euphemisms for the couple themselves as the film portrays

the couple's preparation for death together as love. Such a plot forces an understanding of death in a Christian worldview. While Amour provokes ethical questions regarding euthanization and pleads for the importance of community for those who are experiencing pain, My Lover, Don 't Cross that River demonstrates a Christian understanding of the afterlife as well as love that prepares for death.

This re-reading of the films from a Christian worldview following an aesthetic viewing has many benefits, including wide application pastorally: worldview education, reading films via sermons, Bible study, small group life, humanities lectures, counseling therapy, and so forth.

As a result, this paper explores the definition, practicality, and creativity of a Christian worldview. Additionally, it examines a theological meaning of a Christian worldview and films, arguing for the common ground of narrative.

Specifically, the Christian worldview presented is understood as a metanarrative that supplies meaning to all other narratives, thereby providing a base for analyzing films socio-culturally. Furthermore, this paper proposes several critical means of reading films: pre-understanding of the director and reading films through repeated euphemisms and imagery, and through characters, plot, mood, and perspective. Finally, this paper suggests how such an understanding of films can be applied pastorally through Christian worldview programs, sermons, and small group materials using films, humanities lectures for culture ministry, and counseling therapy.

Theological Mentors: Euiwan Cho, PhD

Young Jin Jung, PhD

물댄동산의 새로운 시도,

고것이 알고싶다

대구제일교회 가족들이 궁금해 하던 바로 "고것"에 대한 제보를 받아 기자단이 취재하고 탐방하고 대신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고것"에 대해선 제한 없이, 얼마든지 문의해 주세요. 사려 깊게, 재밌게 소식 전해드릴게요.

처음의 문의는 '우리 교회 방송실이 궁금해요_ 우리가 늘 보는 화면의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입니다.

Q 영상통신부는 어떤 부서인가요?

A 영상통신부는 '예배의 전자전 연결고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배부터 다양한 모임과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촬영하고 다양한 채널과 넓은 커뮤니티에 전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예배의 온라인 송출이 가장 대표적이겠지요? 팬데믹 시간을 거치면서도 우리 성도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로 나아가고 연결되었던 것은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영상통신부의 수고와 현실을 뛰어넘고자 하는 애씀이 큰 몫을 한 거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디지털 자료를 압축하여 보관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한 일입니다.

Q 영상통신부는 어떤 일을 일하나요?

A 다양한 직분을 가진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행사의 촬영, 음향, 편집을 포함한 전반적 품질관리와 유지를 하는 프로듀서가 있고요.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막을 준비하고 송출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막 담당자도 있습니다. 예배 중 사용되는 10대의 카메라는 2~3명의 카메라 담당자가 최적의 구도를 설정하여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게 됩니다. 영상에는 사운드도 너무나 중요해서 마이크 배치와 음질을 세밀히 체크하며 최고의 소리를 주기 위해 애쓰는 음향 담당자도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조절하고 편집하는 편집자의 역

할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팀원들이 함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장비와 자원을 조달하며 원활한 방송을 위해 노력합니다.

Q 다양한 멤버가 함께 섬기고 있군요. 영상통신부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알려주세요.

A 영상통신부는 협력하고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존중하고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하나로 연합되는 지체로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고자 합니다." 한 몸이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지체마다 역할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합니다(고린도전서 12:12). 그 말씀처럼 영상통신부는 대구제일교회의 한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교회와 세상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영상통신부에 하나님께서 열정과 소망을 가진, 재능있는 사람들을 항상 보내주시고, 저희가 이 일들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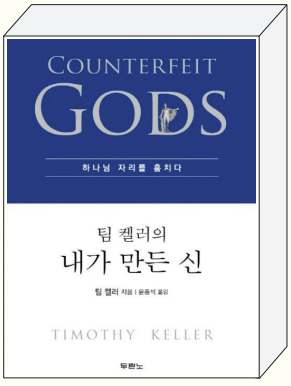
질문 및 인터뷰 담당_ 이 금 환 기자
답변_ 백 창 흠 부부장
인터뷰 정리_ 왕 혜 진 기자

물댄동산 기자단_ 물댄동산에 새로운 기자단이 선임되었습니다. 전문 오지라퍼, 전문 수행러, 전문 기획자, 전문 참석러_기자단의 면면은 다음호에 공개합니다 기대해주세요, 두둥!!

고것이 알고 싶다의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번에 우리교회 곳곳의 더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드리고 싶었는데요. 취재를 하다보니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많아서 다음 지면을 빌어야 겠더라구요. 소곤소곤 알려드리자면,
#당회실 이야기 #평일_사역자실의 이야기입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하라!"



- 도서명 : 내가 만든 신 (Counterfeit Gods)
- 저　자 : 팀 켈러
- 역　자 : 윤종석
- 출판사 : 두란도
- 출간일 : 1쇄 2017년 5월 08일

내 입맛에 맞게 신들을 만들어 내,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기는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신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가짜 신들이 널려 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을 흉내 낸, 말 그대로 가품(假品)들이다.

오늘 당신이 엎드려 절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이 책은 숱한 현대인을 쥐락펴락하는 '돈, 섹스, 권력, 성공'의 공허한 약속과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은 '문화와 종교'의 우상을 해부했다. 특히 이 작업을 위해 친숙한 성경 인물의 이야기와 그들 내면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관찰했다. 아브라함과 평생소원, 야곱과 사랑, 삭개오와 돈, 나아만과 성취(성공), 느부갓네살과 권력,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서 문화와 종교의 가짜 신을 살펴본다.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든 신'이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고, 당신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힐 때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우상은 반드시 실망과 환멸을 가져온다.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라고 썼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 그 우상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과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 깃든 가짜 신들의 실체를 식별하라. 그리고 전인격으로 예수 복음을 통과하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면, 나머지 모든 삶의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그것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당신 인생에 더없이 복이 되리라!

| 저자소개 |

저자 팀 켈러(Timothy Keller)는 맨해튼을 비롯해, 미국 뉴욕 세 군데 지역에서 약 6천 명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리디머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의 담임목사다. 팀 켈러의 설교는 철저히 예수 복음 중심이며, 따뜻하면서도 예리한 지성으로 이 시대를 통찰력 있게 읽어 준다. 또한 팀 켈러는 한 시대의 문화와 사상이 만들어지고 집약되는 '도시 지역' 선교에 헌신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전 세계 100개 이상 도시에 430개 교회의 개척을 도왔다. 한편 〈뉴스위크〉에서 "21세기의 C. 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변증가로서도 영향력 있는 행보를 보인다.

책 속의 PICK

·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비종교적인 것 같아도, 우리 마음은 사실 이 시대의 화려한 각종 우상이 지배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오랜 세월 우리가 숭배해 온 많은 우상(부동산, 가상화폐 등)이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는 잠시나마 '환상에서 깨어나는' 중이다. 옛날 이야기에서 악한 주술사가 걸어 둔 주문이 깨지면서 거기서 벗어날 기회가 오는 것처럼. 희망의 근거로 삼았던 계획이나 일이나 사람이 (생각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 개개인에게 이런 시점이 찾아온다. 사회 전체에 이런 기회가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30쪽)

· 하나님은 그를 용광로에 넣으셨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분이 왜 이삭을 수단으로 삼으셨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무엇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는 우상숭배이며, 모든 우상숭배는 해를 자초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였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49쪽).

· 우리 교회의 한 목사가 어느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돈 관리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을 구두쇠로 여겼다. 하루는 남편이 그 목사와 일대일로 대화하던 중에 자기 아내의 낭비벽이 심하다고 불평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옷과 외모 단장에 돈을 엄청나게 쓰거든요!" 남에게 예뻐 보이려는 욕구가 아내의 돈 씀씀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남편의 눈에 똑똑히 보였다. 목사는 그에게 표면적 우상과 근원적 우상의 개념을 알려 줬다. "당신이 전혀 쓰거나 베풀지 않고 일 원 한 푼까지 다 쌓아 두는 것도 똑같이 이기적인 일임을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데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116-117쪽)

· 당신은 존재의 심연에서 하나님의 복을 들었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 1:11)라는 말씀이 기쁨과 힘의 끝없는 원천인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꼈는가? 야곱이 받은 것이 바로 그 복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것이 되었다. 이것만이 우상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이다. 이 복이 있어야만 우상이 필요 없어진다. 야곱처럼 우리도 대개 '온갖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며' 살다가 그 후에야 이 복을 발견한다. 마침내 이를 발견하려면 대개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수많은 이가 저는 다리로 기뻐 춤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242쪽). | 올댓홍상

註. 위의 내용은 출판사의 안내문과 서평 그리고 도서 내용의 일부를 최무진 장로(홍보출판부 편집위원)가 편집한 것입니다.

사설

나 넘어 우리의 죄 회개하는 사순절 되길

지난 14일 '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절제와 경건을 다짐하는 사순절이 시작됐다. 사순절사순절(四旬節·Lent)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하는 삶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40일간의 기간이다.

사순절은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날짜를 확정하면서 함께 정해졌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준비했으며, 교회들이 점차 세례준비 기간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명을 준비하며 금식했던 40일에 맞추게 되면서 교회 절기로 정착하게 됐다.

사순절 기간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의 성찰,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 각자의 마음을 정화하는 기간이다. 사순절을 보내는 교인들은 이 기간 동안 '개인의 죄'를 넘어 내가 속한 '사회적인 죄'까지 회개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것을 기대한다.

연합기관인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사순절을 맞아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 기후 위기로 재난을 겪고 있는 이들, 노동 현장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이들 등 시대의 아픔을 겪는 이들과 마음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순절 기간을 회개와 경건으로 보내기 위해 교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을 권한다. 교단 소속의 교인들은 총회 교육자원부가 발행한 '사순절의 깊은 묵상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게 묵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계에서 매년 진행하는 다양한 사순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미디어의 홍수 시대에 '사순절 미디어 금식'을 통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점검하고, 기독교환경운동 단체에서 매년 진행하는 '사순절 탄소금식'에 동참해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돌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을 권한다.

한국기독공보 / 2024년 02월 19일

논단

위기 시대, 희망되는 교회 세우기!

한국 교회,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확연히 드러난 한국교회의 위기 양상은 결코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교회는 120년의 역사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지만,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많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오랜 시간 내재된 문제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마주하고 있다. 위기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초래되었다. 그러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신앙'에 있다. 즉, 교회의 교회답지 못함, 즉 신앙인의 신앙인답지 못함에 있다. 이것은 교단이나 연합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적지 않은 교회의 내부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하는 안건들과 관심 사안들을 주목할 때 더욱 확연해진다. 신앙 공동체, 조직과 제도적 구조의 차원에서 신앙인다움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인들과 교회의 부족함이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는 공공성이 부족한 교회라는 비판 앞에 무력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하면서, 교인들의 열패감을 키우고 있다.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도 신실한 신앙인 됨, 즉 신앙인으로서의 장성함에 이름이 무엇인지, 그러한 물음의 의미와 내용이 도전을 주지 못하는 상황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즉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도전이 매우 부족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여전히 수백만의 신앙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며 교육받으며 나름대로 봉사에 힘쓰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현재 위기 상황 안에서 건설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과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더욱 신앙인다워짐, 즉 장성한 신앙인 됨이며, 신앙 공동체 차원에서는 신앙인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다워짐이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공동선 추구에 모델이 되는 교회 됨을 이룸이다. '신앙인다운 신앙인' 즉 성숙한 신앙인과, '교회다운 교회' 즉 건강한 신앙 공동체이자 사회적 기구로서의 교회는 서로 유기적 상관관계에 있다. 온전한 신앙인 됨과 교회 됨이 하나님 나라와 그 시민 됨과 직결되어 있음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달려 나가야 할 푯대를 더욱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한국교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온전한 신앙인 됨과 교회 됨을 향한 '열망'이다. (벧전 3.13-17)

임성빈 목사<장신대 전 총장> 한국장로신문 / 2024년 2월 6일

홍보출판부 "05월12일 사역박람회"

사역박람회란?

1. 사역박람회는 무엇이며 언제 하나요?

가. 홍보출판부를 알림 및 부원 모집 행사

나. 5월 둘째 주 일(12일)에 교회 마당 부스에서 진행

2. 사역박람회에서는 어떤 것을 하나요?

가. 2인 이상 사진을 찍어 출력하여 액자를 만들어 드리는 코너

나. 영정사진 찍어드리는 코너

다. 가정의 달이니만큼 부모님께 편지쓰기 코너

라. 물댄동산과 달력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코너

연번	활동 명	시기 일정	내용
1	물댄동산	년 4회 / 3월 6월 9월 12월	물댄동산(교회신문 발간)
2	취재기자단	년 4회 / 2월 5월 8월 11월	숨은 장소 및 부서 등 취재
3	달력	연중 제작 / 12월 배부	교회달력(탁상, 벽달력)
4	사역박람회	5월 둘째 주일 예정	홍보출판부 사역알림행사 및 부원 모집
5	스튜디오실	연중	첫 출석, 세례, 입교 등 교회 행사 및 증명사진 활영

2024년에도 홍보출판부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댄동산

곽재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우 정 복 원로장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칭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의 이름”의 구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임)

▶ 구약

이 름	언어별 표기			사용한 곳	뜻
	히브리어	영 어	한 글		
여호와	예호바	Lord	여호와	출3:2 등에서 5494여 회	지존 자, 영원한 자, 여호와, 주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곧 나다(출3:14)인 여호와(야훼) 뜻임
여호와	아도나이	the Lord	주 님	창18:3 등에서 414여 회	주, 주님께, 내 주 등의 뜻으로 여호와의 대명사로만 사용(출4:10)
하나님	엘로힘	God	하나님	창1:1,시8:5 등에서 2244여 회	신들(복수), 천사들, 하나님들, 재판장들 등의 뜻임 <참고>말씀(지혜,성자)은 천지창조 전에 **났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하셨다**(잠8:22-31,골1:15-17,요1:1-3,요일1:1-3,창1:26 등)
하나님	엘	God	하나님	시118:27 등에서 230여 회	하나님, 신, 힘, 힘센, 전능자, 능력, 강한 등의 뜻임 <참고>출34:14의 앞의 ‘다른 신’인 ‘엘’은 ‘하나님’ 또는 ‘신’이 되고, 뒤의 ‘질투의 하나님’도 같은 ‘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
만군의 여호와	차바 예호바	the Lord almighty	만군의 여호와	삼상1:3,삼상15:2 등에서 255여 회	군대, 군사행동, 예배, 전쟁, 군인 등의 뜻임 <참고>주로 출애굽 이후에 사용

▶ 신약

이름	언어별 표기			사용한 곳	‘하나님 이름’의 구분 또는 뜻
	헬라어	영 어	한 글		
하나님	데오스	God	하나님	요1:1 등에서 1150여회 (신약의 “하나님”은 앞뒤의 문장내용에 따라서 구별하여야 한다.)	<‘하나님 이름’의 구분> ①‘전능자, 창조자, 예수의 아버지’ (마1:23,요17:3,눅18:11 등) ②‘예수 그리스도’(요1:18,딛2:13 등) ③‘하나님의 성령’ (마3:16,고전2:14,고전3:16,고전6:11,고전12:3,빌3:3 등) ④‘다신교, 사회의 신’(행28:6,고전8:5.갈4:8,살후2:4 등) ⑤‘이 세상의 신’(고후4:4 등) ⑥‘존경 받는 자’(요10:34,35 등)등임
전능자	판토클라톨	Almighty	전능한자	고후6:18,계1:8 등에서 10여 회	전능자, 주권자, 하나님, 무소부재자 등의 뜻임

이름	언어별 표기			사용한 곳	'하나님 이름'의 구분 또는 뜻
	헬라어	영 어	한 글		
만왕의 왕	바실류스	King of Kings	만왕의 왕	계19:16,마2:2,마5:35 등에서 106여 회	주권자, 왕 등의 뜻임
만주의 주	퀴리오스	Lord of Lords	만주의 주	계19:16,마1:20,22,24 등에서 658여 회	통치자, 하나님, 주, 주님, 선생님 등의 뜻임
만군의 주	사바오드 퀴리오스	the Lord Almighty (Sabaoty)	만군의 주	롬9:29, 약5:4 등에서 2회	군대, 만군, 하나님의 군대의 통칭의 뜻임

2.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제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출3:14)】 에 있어서

▶ 앞의 "하나님"은 복수인 "하나님들" "신들'이 된다.

① 여기의 "하나님"은 창1:1의 "하나님"과 같은 (히)"엘로힘"으로써, "신들(복수)" "천사들" "하나님들" "재판장들" 등의 뜻이 된다(빅트리 성경).

②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창1:1), 단수가 아닌 복수인 "하나님들" "신들"이 된다. 그 근거의 사례로는

* 여호와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내(지혜)가 났으며, 함께 창조하였다. (잠8:22~31,골1:15~17,창1:26)와

* 그가(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다(요1:1~3, 요일1:1~3, 히1:2,10) 등이 있다.

▶ 그러나 뒤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곧 나다"는 단수인 "여호와(야훼) 하나님"이 된다.

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곧 나다"의 문자 기록은

* (히) "하야" 또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를 (헬) "에고 에이미 호 온"으로

* (영어)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으로

* (한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나는 곧 나다"로 기록하고 있다.

②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는?

* 이는 일인칭 형태의 단수가 되므로 (히)"엘로힘"인 "신들"의 복수가 아닌, 단수인 (히)"야훼"가 되어야 하고

* 또한 이를 "오픈 성경" "톰슨 성경" "이상근 주해 성경" 등에서도 역시 (히)"야훼"로 설명하고 있다.

*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영원부터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로 "나는 곧 나다", "전능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 "여호와(야훼) 하나님"(출3:15)이 되신다.

▶ 따라서 앞의 "하나님"을 여기서는 "여호와(야훼) 하나님"으로 보아야 한다.

* 앞의 "하나님"은 복수인 (히)"엘로힘" 이지만, 뒤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단수인 "여호와(야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 여기서는 복수의 "하나님"이 아닌, 단수의 "여호와(야훼) 하나님"(출3:15)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

김 홍 석 명예집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현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십자가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문제는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기에 십자가 없이는 승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 너무 힘드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십시다. 죽으면 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깊이 뿌리내리고 나 자신은 죽고 또 죽으십시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의 삶에 십자가가 빠지게 된다면 그 삶은 마치 엔진 없는 자동차 같고 그리고 책이 없는 도서관 같은 삶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 2)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십자가를 성경이 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십자가는 신앙의 본질이며, 십자가는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신 마음도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도 된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올려놓고 못 박기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그 이름의 뜻이 '작은 자'였지만 자신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낮아지기를 그리고 자신을 부정하기를 힘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

울은 기독교사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 외에는 자아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으며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드리려면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아"란 죄와 욕망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죄"와 "욕망"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삶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자아와의 싸움을 통해 십자가의 삶을 다짐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세계에 자아가 살아 있을 때는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의 전 생애를 주님께 맡길 때 비로소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그의 거룩한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매일 죽으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신비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 아래서 깨어지고 부서진 경험과 흔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아직도 살아 꿈틀대는 자아의 죽음이 없는 신앙의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가 모든 가치의 중심이 아니라 육적 소욕을 채우는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쇠렌 오뷔에 키르케고르(Soren Aabye Kierkegaard 1813~1855)는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그가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먼저 무로 만드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를 비하해 목숨을 걸고 자기부정의 삶을 살려고 애썼던 미국의 선교사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David Brainerd. 1718~1747)는 "스스로 죽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멸망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결코 쉽지 않고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그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걷게 되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죽을만한 그러한 고통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통도, 어떠한 괴로움도, 어떠한 슬픔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강물을 이루어서 우리의 상처 난 곳을 적시고, 우리의 절망적인 환경을 적시고, 우리의 문제 있는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적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쌀덴풍상

나는 지금 노아(Noah)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권종웅 명예집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人子)가 다시 오신다는 놀랍고 우주적인 정보(outer space information)를 알려 주시면서, 그 때에 하늘에서 나타날 징조(徵兆)와, 실제 인자가 오시는 광경(光景)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다.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사방(四方)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고 천명(闡明)하셨다. 비록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자신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역설(力說)하셨다(마태24:29-35). 이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의지(意志)와 신뢰성(信賴性)을 나타내시기 위한 말씀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는 건 상상(想像)이 안 되는 것처럼, 재림(再臨)이 없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과 그 시각은(that day and hour)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다(마태24:36). 재림은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역사적 팩트(fact)로 크리스천들의 강한 믿음이 담겨 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자녀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신다. 신약의 히브리서(書)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기록됐다(To have faith is to be sure of the things we hope for, to be certain of the things we cannot see.).

예수님께서는 재림은 노아(Noah)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라고 하셨다(마태24:37-39). 그 당시의 사람들은 현실 생활에만 매몰(埋沒)되어, 다가올 일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 같다. 예수님께서는, 집주인이 도둑이 올 시간을 알고 깨어 있으면,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신다(마태24:42-43). 요즈음은 잠을 자지 않고 밤새울 수는 없으므로, 문단속을 단단히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수님의 도둑 비유(比喩)는 인자가 생각지

도 않는 시각에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當爲性)을 강조하신 말씀이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일념(一念)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소홀하다간,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받는 일이 생겨날 수 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여자만 들림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마태24:40-41). 이 말씀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긴장(緊張)시키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직스럽고 착실하게 준비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夫婦)나 부모자식도, 선별적(選別的)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를 몹시 슬프게 하는 대목이다. 이런 경우엔 서로가 슬피 울 수밖에 없다.

오늘날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까이 두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는, 먼저 노아의 방주(方舟)를 떠올리며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묵묵히 굳건하게 방주를 만들었다고 짐작된다. 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부여된 소명 의식(召命意識)으로 살았다는 생각이다. 반면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그들은 홍수로 목숨을 잃을 때까지 심판을 의식하지 못했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비유로 들어, 크리스천들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신다. 아직도 크리스천들은 재림 의식이 부족하여, 세상살이를 우선(優先)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뒤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茶飯事)이다. 이제라도 가까이 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꺼이 맞이할 준비를 신실(信實)하게 해야 한다.

노아 시대는 부패하고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되었으나,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고 하시면서, 잣나무로 방주(方舟) 한 척을 만들도록 명하셨다.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의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방주로 들여보내어 살아남게 하겠다고 언약하셨다(창6:18). 홍수가 그치고 방주는 아라랏 산(山)에 머물러 쉬었다고 기록됐다(창8:4). 아라랏 산은 해발 고도 5,137m로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다. 다수의 탐험가가 수차례에 걸쳐 아라랏 산의 노아 방주를 실제 발견하여 확인했다고 한다. 방주는 안팎으로 역청이 칠해졌고 그 형태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발견된 방주의 모양과 크기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한다고 했다.

지금 우리 각자는 주님의 재림을 가깝게 생각하고,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아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준비한다는 뜻이다. 노아는 구원받기 위해 방주를 만들었지만, 지금 크리스천은 재림을 의식하여 믿음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신다. 지금 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 | 풀덴풍상

성도의 글

구약 희년법의 진실과 오해

이 재 율 은퇴안수집사
(계명대 명예교수)

구약 레위기 25장에 희년 법이 기록되어 있다. 희년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난이 후손에게 대물림(세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 외에 노예를 해방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도 희년의 중요한 목적이다. 이 제도는 매우 지혜로운 제도여서 오늘날에도 꽤 많은 그리스도인이 관심이 있는데, 의외로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희년 제도의 중요한 내용은 희년(50년째 되는 해)에 팔았던 토지를 돌려받고(레25:10),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가족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레25:47-54). 그래서 희년은 큰 기쁨의 해였다. 희년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먼저 토지가 분배되었다.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출전 가능한 남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땅을 지파별 및 가족별로 상당히 공정하게 분배하였다.

땅이 공정하게 분배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행운과 불운에 따라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이 생기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유재산인 땅을 팔아서 경제적 위기에 대처하게 되었다. 이때 땅을 영구적으로 판다면 후손들은 영영 땅 없이 가난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땅을 팔되 영구적으로 팔지는 못하게 하고, 희년에 돌려받는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하였다. 즉 땅을 50년 이내로 빌려줄 수만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가족을 노예로 파는 경우에도 영구적 노예가 아니라 기간을 50년으로 정해서 희년에 해방될 수 있게 하였다. 땅을 파는(빌려주는) 가격은 희년 때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결정되었다. 희년에는 땅을 산 자가 판 자에게 당연히 돌려주었다. 그것은 거래 계약의 이행일 뿐이었다. 희년 제도는 주기적으로 초기의 공정한 토지분배 상태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데, 이것은 50년마다 오늘날의 농지개혁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농지개혁은 지주에게 희생을 강

요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 하는데 비해, 희년 제도는 누구의 희생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공정한 상태를 회복하는 점이며, 이런 점에서 매우 지혜로운 제도였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자들(대천덕, 김회권 등)은 그 당시 토지제도가 공유제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오류가 생긴 것에는 19세기 미국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된다. 그의 토지 공유 사상은 주로 대천 덕 신부를 통해서 국내에 전파되었다. 조지의 사상은 자연법에 기초하여서 희년 법과는 다른 것임에도 조지 스스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하나의 오해는, 희년에 지주들이 희생을 감수했다는 주장이다(김회권 교수 등, 『희년』, 홍성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주들은 희년에 돌려주는 조건으로 땅을 싸게 샀으므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며, 돌려준다고 해서 지주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었다. 이런 두 가지 오해에 기초하여 오늘날 조지(George)식 희년 운동은 토지 공유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지만 희년 운동은 조지의 사상보다 성경의 희년 정신에 토대를 두어야 할 것이다.

땅이 유일한 재산이자 생산수단이던 3천 년 전의 이스라엘과 오늘날은 상황이 너무나 다르므로, 희년 정신(가난의 세습 방지,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 시민적 자유 확대 등)의 실현을 위해서 땅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 기회의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샬롬동산

누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나?

권혁창 안수집사

올해도 어김없이 정책 당회라는 한 해의 교회 살림을 위한 회의체가 소집되어 여러 결정들을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들었다. 수십 년을 꼭 같은 소리를 들어온 터라 뭐가 잘 되었는지 새롭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호기심마저도 무감각하다.

코로나 이후 경제 상황도 불확실하고 오래전부터 조금씩 신뢰성을 잃어가던 사회에 대한 기여도에 대해 많은 사람의 기대감도, 또한 인구감소에 의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신도 수가 점점 더 줄어듦이 현실화된 근래에 교회는 여러 방면에서 더 위축되어 간다. 1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제일교회도 여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출석하는 교인수도 별반 늘어난 것 같지 않고 큰 덩치만큼 필요한 오지랖에 재정도 넉넉하게 여유로워진 것이 아니니 최근 10여 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전혀 성장의 기미가 없는 상태다. 교회의 성장 발전을 외형적인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면 그건 궤변에 가까운 변명이니 이런저런 대꾸를 다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교회도 전혀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본당 지하 활동 공간 확보, 엘리베이터 설치, 주차장 정비, 행정 전산 프로그램 도입, 몇몇 부서 증개편 등등... 물론 세부적으로 각 부서와 자치회 조직마다 새로운 진행과 이벤트성 행사 등도 있었다. 그런 건 분명히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수립되고 치러지는 회의체 결의 사항이나 행사들이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깨워서 침체에 빠져있거나 도전이 필요한 제일교회의 공동목표를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도 불명확 하지만__희미한 추상적인 단어 말고) 달성하기 위한 혁신이라 할 만한 것이라기에는 많이 부족한 지엽적인 것들이다. 결론을 말한다면 우물 안이든 냄비 속이든 편한 자리에서 하던 데로 계속하고 좋은 게 좋다는 그런 형식이다.

예전 고도 성장기의 "우리 땐 말이야" 시대에는 조직을 짜 놓으면 그에 따라 자동으로 적당한 성과가 나서 실적에 서로가 만족할 만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미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에 따른 새로운 시도도 없이 단순하게 고정된 조직만으로 단체가 효

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남들도 시행하고 있는 한 가지를 제안하자면 실행전략에 따른 유연하고 맞춤형이라 할 수 있는 조직운영과 대화를 열어가는 창의적인 토론의 장을 열어주어야 다양한 아이디어가 서로 경쟁적으로 수정 보완될 수 있는 제일교회만의 소통의 문화가 열릴 것이다.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 자리를 조정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한다면 다음다음의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과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신은 어려울 것이다.

아직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세밀하게 살피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끈질긴 인내가 필요하다. 충돌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진정한 리더 그룹이라면 당회나 항존직 그리고 여러 자치회의 임원들은 이렇게 눈앞의 위기에서 뿔뿔이 "나를 따르라" 가 아닌 차근차근한 내실을 다질 통합된 문제의식과 대응 아이디어부터 공유하고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부디 2024년에는 새로이 시작하는 정책(당회), 임직하는 분, 부서 행사, 예산 등등에 상황이 어렵다 사회가 변했다 무엇이 필요하다 말은 하면서도 매번, 수년, 수십 년 같은 것만 고집하고 눈앞의 가려운 곳만 살짝 긁는 꼼지락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난, 정말 매번 궁금하다. 대구제일교회에서 누가 미래의 목표를 계획하여 앞장서서 추진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좌충우돌 실무를 조정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나마 이렇게라도 유지하는 게 어딘데?', 그런 뜻인가? 올댓홀상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신성수 안수집사

지난 1월 첫 주일예배 설교 후 담임목사님께서 은혜받으셨다고 말씀하셨던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 부르던 중에 3절 가사가 너무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니 바로 그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장면들을 회상하며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인 2009년 초에 약 20년간의 회사생활을 갑자기 마감하고 힘겨운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잠자던 중에 큰 음성을 여러 차례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 "(마6:34)

하나님은 제가 염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새벽기도와 성경묵상과 기도와 찬송에만 전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쳐 버티지 못하고 "주님, 이제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 주님이 오셔서 제 입을 통해서 따뜻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봄철이었지만 방안은 온통 서리가 하얗게 내려져 있는 것같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눈만 감으면 제 영혼은 찬바람이 부는 캄캄한 거리의 가로수 불빛과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빈 도시의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며 방황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잠들기조차 두려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눈을 감았는데 성경책이 열리며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 제게 오셔서 자상하고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제 얘기를 귀 기울이며 들어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미소를 바라

보며 평안이 밀려오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상한 마음과 영혼의 고통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고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 해 12월 체인점 가게 계약 후 집에 돌아와 피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는데 앞에 있는 산 전체가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다급히 하나님! 하나님! 크게 외치다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다음 해 1월부터 아내와 함께 삼각김밥 가게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 2년째부터는 아내는 몸이 아파서 아침부터 11시까지 저 혼자 오픈 준비를 하며 밤늦도록 일하게 되면서 점점 더 지쳐갔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하며 아침마다 (기도에 가까운) 간절한 찬양을 드리며 그때마다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제 곁에서 찬양을 듣고 계시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의 찬양을 듣고 계셨습니다(겔1:1). 하나님은 가만히 찬양을 듣고 계시다가 유독 제가 찬양과 함께 기도와 소망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는 귀를 옆으로 기울이시며 집중하며 들으셨는데 이러한 모습을 발견 후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격하여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이런 일이 며칠간 계속 반복이 되어 저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알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속된 물음에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약 1주일이 지난 무렵 그때도 찬양을 드리는 중에 갑자기 정전된 것처럼 눈이 닫히며 다시 열렸는데 앞이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살짝 숙여서 진지하게 앞을 주시하며 계셨는데 저는 하나님 옆쪽에 가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깜깜한 앞쪽 스크린에서 작은 하얀 점이 보이기 시작했고 이어서 줌으로 당겨서 보는 것같이 화면 전체가 커지며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8세 때쯤 신천교회 여름성경학교 예배 장면 중 많은 어린이 가운데 입을 크게 벌리며 찬양하고 있는 어린 저를 크게 클로즈 업 시켜 주셨는데 이상하게도 너무도 불쌍하고 애처롭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긴다." 는 말씀을 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도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가정에서 눌림과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커져가고 있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성경학교 예배시간에 다윗의 성경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하나님, 다윗처럼 저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름성경학교 내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하며 작은 입을 (마치 새끼 새가 어미의 주는 먹이를 기다리듯이) 크게 벌리며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시며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연약한 저를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

p.s. 저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매일 꿈같은 은혜의 시간을 보내다가 가게 5년 후 하나님께서 그 전의 회사로 재취업하게 하셨습니다. | 샬렘종상

잠의 세계

이미영 집사

나는 잠과 친한 편이다. 잠자리에 들어 이불을 끌어당기면 뚝딱 아침이 찾아온다. 청춘의 남자가 알약으로 잠을 청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운동하라는 꽉 막힌 조언을 늘어놓았다. 그 청춘은 암벽등반이 취미인데 말이다. 그는 십여 년째 사회학 공부를 하다가 사회에서 멀어져 버렸다. 사회학은 사회에서 설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았다. 청춘의 낮은 길고 밤은 짧아야 하는 법, 그의 밤은 길고 길었다. 기나긴 밤을 견디지 못한 잠이 멀리 달아나 버렸다. 약을 삼키며 불러들이는 중이다. 작은 이부자리는 고단한 세상살이를 알아주기는커녕 더 매정하게 군다.

사치스러운 불면의 밤이 생각난다. 첫사랑의 그 애가 절교를 통보하던 날 난생처음 하얀 밤을 보냈다. 창밖이 환하게 밝아 올 때까지 울다가 말다가 또 울며 지새웠다. 좋아하는 마음을 접을 수 없어 눈물이 넘쳤다. 혹시나 그 애가 다시 나를 찾지나 않을까 기대하는 내가 미워서 울었다. 그 후로도 며칠 눈물에 젖어 잠을 설쳤다.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는 날이면 불면의 시절이 그리워진다.

금방 잠들지 못하는 요사이 밤, 눈물을 닦은 적이 없다. 거친 호흡을 가다듬기에 급급하다. 눈물이 속에서 흘러넘쳐 잠들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어째서 메마른 가슴을 안고 뜬눈으로 깜깜한 시간을 센다. 하나, 둘, …, 백 하나, 이백 두울, …. 아무 소용 없는 호출이란 것을 알지만 자꾸 부른다. "또~옥" 천천히 흐른다. "따~악" 선명하게 늘어진다. 시계도 눈치채고 잠이 달아난 밤을 함께 지새운다. 잠이 멀어진 밤은 이백 살 먹은 거북이처럼 기어간다.

렘브란트의 그림 <돌아온 탕자>가 펼쳐진다. 그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과 따뜻하게 끌어안는 아버지에게 환한 빛을 입힌다. 누더기를 걸치고 한쪽 신발만 끌고 돌아온 작은 아들의 어깨를 붉은 망토를 입은 아버지가 두 손으로 감싼다. 그 옆 어두운 자리에서 장남은 시선을 잃고 앉아 있다. 아버지와 탕자에게 쏟아진 조명 때문에 형의 모습은 화면에서 더욱 물러나 보인다. 어둠 속에 가려진 형 그리고

빛이 가득한 편에 서 있는 아버지와 동생의 화면 구성에서 형의 속내를 읽는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는 형을 컴컴한 자리에 앉히고 두 사람을 쳐다보도록 그리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거룩한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 용서와 관용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누가 형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기나 했을까. 묵묵히 자리를 지킨 그는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자꾸 뒷전에 물러난 장남에게 시선이 쏠린다. 나도 형 같은 처지가 되기 전에는 속 좁은 인물이라 생각했다. 시동생과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두운 곳에 앉은 맏며느리, 나를 대입해 보는 것이다.

추석을 지나며 이불을 덮어쓰고 숫자를 세어가며 잠을 불렀다. 형편이 어려운 시동생네 식구들은 추석날 아침에 느지막이 등장한다. 다시 보름이 지나고 시아버님의 기일 밤이다. 온종일 준비한 제사상을 차려 놓고 아무 연락도 없는 그들이 와주기만을 기다린다. 제사를 지내고 더 빨리 침대를 찾았다. 내 눈치를 살피는 남편을 놓아주려고 서둘러 잠을 불렀다. 잠에 빠지면 어두움은 느끼지 못하니까, 잠은 팔다리의 고단함도 금세 풀어 줄 테니까.

잠은 명약이다. 이불 모서리를 쥐고 바로 누웠다가 모로 세웠다가 배를 깔았다가 갖은 자세로 거친 숨을 고르고 있자면 녀석은 스르르 찾아와 렘브란트 그림 속 어두운 곳에 앉은 나를 밝은 곳으로 잡아당긴다. 아침이면 타들어 가던 명치 주변의 통증이 누그러지고 애써 들숨 날숨을 몰아쉬지 않아도 저절로 가슴이 들썩거리도록 만든다. 갓난아이가 자고 나면 쑥쑥 자라듯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온몸에 붙어있던 어둠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간다.

잠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죽음과 닮았다는 것이다. 이 십여 년 동안 육체의 고통을 지고 산 아버지가 평안한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마지막 날이었다. 신음 속에 지내시던 당신이 참 오랜만에 미소를 머금고 잠에 빠져들어 갔다. 슬펐지만 질긴 통증에서 벗어난 아버지를 축하하고 싶었다. 영원한 이별이 슬펐지만 아프지 않고 푹 주무시는 거라고 우리를 위로했다. 그래서 잠과 닮은 죽음에 위로받기도 했다.

새벽녘까지 뒤척이다 표준 새번역 개정판 성경을 살펴본다. (누가복음 15:11~32)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는 작은 제목이 붙어있다. 그 아래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장남을 달래러 나가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떠올라 눈물이 고인다. 언제나 우리 편이던 아버지가 따뜻하게 손을 잡고 "금방 괜찮아질 거야." 토닥여주는 것 같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아버지랑 같은 거야." 할 것 같다.

나는 원래 잠이랑 친하다. 이불을 덮으면 뚝딱 잠에 빠진다. 울면서 보낸 밤은 눈물이 가슴을 적셔주어 통증을 남기지 않았다. 한밤중에 발견한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다시 잠자리로 가게 만든다. 나는 금방 단잠에 빠질 것이다. 용서와 관용이라는 단꿈이 찾아올 것이다. | 쌀렌풍상

야베스의 기도

최성민 전도사

사역_ 찬양사역, 청년부 지원

샬롬~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저는 대구제일교회에서 대예배 2부, 금요기도회, 청년부 찬양 인도를 담당하는 최성민 찬양전도사입니다.

먼저 2023년을 돌아보며 우리 대구제일교회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매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하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또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에서 찬양으로 더욱 뜨겁게 섬기며, 대구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이제부터 물댄동산을 통해 매번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소개해 드릴 텐데, "어떤 곡을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곡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굉장히 오래된 곡으로 약 20년 이상 전부터 우리와 함께해온 복음성가입니다. 이 곡은 찬양의 가사 속에 '야베스' 라는 인물의 스토리텔링(이야기)이 느껴지는 곡이며 그의 삶의 배경을 알고서 찬양을 들어본다면 찬양의 가사에 더욱 몰입이되고, 나의 삶에 적용해 공감하며 녹여낼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야베스'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고생과 고역, 슬프고 비탄하다'라는 뜻으로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무척이나 힘겹게 출산했다는 경험으로 인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이름 뜻과는 전혀 다른 운명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대상 4:10)'

라고 기도하여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고계신 분들 중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삶의 고난, 역경'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부정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과 계획으로 이끄시며, 그 적용 대상은 세상의 운명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소망을 잃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함께 공감하시며 은혜로운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물댄동산

QR 코드를 찍어보세요!
찬양곡 바로듣기 ▶

충동조절이 어려운 당신,
혹시 성인 ADHD?

이 재 정 장로
(총무부 부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지나치게 움직이고 부산스러운 과잉행동(hyperactivity), 길게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싫증을 내는 주의 산만함(inattention), 참을성이 적고 욱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충동성(impulsivity)의 세 가지 주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아동기 초기에 발병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밟으며 가정, 학교 등 여러 생활 영역에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연령이 높아지면서 과잉행동의 특성들은 줄어들 수 있지만, 끈기가 없고 주의가 산만하며, 충동적인 면은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남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아 ADHD의 유병률은 일반 인구의 6~9%입니다. 이 중 60~80%는 청소년기까지 계속됩니다. 50%, 즉 소아 ADHD 환자 2명 중 1명은 성인이 되어도 ADHD의 주요 증세나 전체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증세를 유지합니다.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낮은 교육 수준과 실업직업의 부재,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문제, 감정조절실패, 이상행동 등의 문제와 함께 이혼과 교정시설 수용 등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성인 ADHD 환자의 70~80%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 사용 장애, 섭식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포함하는 성격장애 등의 공존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 ADHD 환자는 공존 질환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ADHD의 주요 증상은 주의산만함과 충동성입니다. 다음 9가지 주의산만함 증상들 중 5개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성인 ADHD가 의심됩니다.

① 세부 사항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조심성이 없어 실수를 잘한다.
② 과제나 놀이 활동의 지속적인 주의집중에 어려움이 있다.
③ 마주 보는 대화에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④ 지시를 따르지 못해서 학업, 심부름, 업무 등을 끝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⑤ 작업과 활동을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⑥ 장시간에 걸쳐 정신적 노력이 필요한 일(학업이나 숙제)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한다.

⑦ 외부 자극에 쉽게 산만해진다.
⑧ 필요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
⑨ 일상적인 활동(약속, 심부름)을 자주 잊어버린다.

그리고 다음 9가지 과잉행동-충동성의 증상 중 5개 이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도 성인 ADHD가 의심됩니다.

① 손발을 꼼지락거리거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한다.
②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교실 등)에서 종종 자리를 떠난다.
③ 조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초조함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뛰어다닌다.
④ 여가활동에 조용히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⑤ 쉴 새 없이 활동하거나, 모터가 달린 것 같이 행동한다.
⑥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한다.
⑦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⑧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⑨ 타인이 하는 일에 간섭하거나 방해한다.

이러한 증상들이 12세 이전에 나타나야 하고, 적어도 두 군데 이상(가정, 학교 등)에서 나타나며 학업적,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저하하는 증거가 있어야 성인 ADHD 진단이 가능합니다.

성인 ADHD의 원인은 유전적 요인, 신경학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합니다. 유전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는데 부모나 형제 중에 ADHD가 있는 경우 자녀나 형제 중에 ADHD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성인 ADHD 환자의 자녀 중 한 명이 ADHD일 확률은 84%, 2명 이상이 ADHD일 확률은 52%로 나타났습니다. 신경학적 요인으로는 뇌 안에서 주의 집중 능력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이 불균형하여 발생하거나 주의 집중력과 행동을 통제하는 뇌 부위의 구조 및 기능 변화가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인 ADHD의 치료로는 약물치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

트 제재는 중추신경 자극제로서 도파민 운반체의 활동을 방해해 도파민의 재흡수를 차단해서 도파민의 양을 줄어들지 않게 도와 도파민의 농도가 균형을 되찾게 되고 집중력에 관여하는 전두엽이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충동성이 조절되면서 차분해지며 학업과 직업적 능력이 향상됩니다. 식욕부진, 두근거림, 불면, 틱의 악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 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 비 중추신경 자극제인 Atomoxetine 제재를 사용합니다. 또한 오래된 증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역기능적 문제들을 수용하고, 자신의 문제를 통제하면서 문제가 되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개선하는 인지행동치료를 함께 실시합니다. 스케줄러를 통해 체계적으로 일정을 관리하여 업무 효율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감정 조절 훈련을 시행하여 화가 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합니다.

성인 ADHD 환자에게 유용한 습관으로는

① 메모가 가능한 노트나 수첩, 스마트폰을 항시 휴대합니다.
② 주변에 휴지통과 정리함을 여러 개 배치합니다.
③ 열쇠, 전화기, 지갑 등의 물건을 담는 보관함을 항상 같은 위치에 두고 사용합니다.
④ 반복되는 실수를 파악하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⑤ 주므를 수 있는 물건을 주머니에 항상 소지하면서 불안과 분노가 생길 때마다 이를 사용하여 감정을 조절합니다.

성인 ADHD는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 사용 장애, 섭식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포함하는 성격장애 등의 공존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쌀덴풍살

우리 곁의 "심리학" [3]

심리치료, 새로운 통찰

양선미 집사[1)]

언제 마지막으로 역경을 겪으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원치 않는 고통 또는 현실의 균열들을 겪으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갑자기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타격을 가하는 그런 순간들은 상처이고, 충격이며, 아프고, 평정심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균열이 크면 클수록 부러움, 질투, 두려움, 실망, 충격, 슬픔, 불안, 분노, 공포, 죄책감, 분개, 심지어 증오, 절망, 혐오 등의 감정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 현실의 균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뤄야 할까요?

만일 현실의 균열이 작거나 또 상대적으로 빨리 좁혀질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합리적으로 이를 잘 해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더 커지고 오래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욱 힘들어합니다. 바로 이 점이 역경을 마주할 때에 '내면의 만족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면의 충만감이란 커다란 현실의 균열에 직면하더라도, 우리의 꿈이 실현되지 못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거칠고 불공평하더라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평화와 안녕, 활력, 웰빙에 대한 깊은 감각입니다.

커다란 고통, 두려움, 상실, 박탈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면의 만족에 초점을 맞추며 2000년대 심리치료는 불편하고, 균열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변화의 과정에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Commitment Therapy)는 모든 심리치료의 공통의 주제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리고 그것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에 대한 접근인 동시에 이러한 불편한 경험이 일어나는 보다 큰 맥락, 즉 '삶'을 어떻게 조망의 전경으로 유지하는지에 대한 접근입니다.

결국, 수용전념치료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경험적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1) 심리치료학 박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물댄동산 편집위원

수 있으며,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선을 살펴보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수용전념치료에서는'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다'라는 생각을 가볍게 쥔 채로, '과연 고통이 잘못일까?'라는 질문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수용전념치료에서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중요하고, 이때 행동(태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수용전념치료에서 또 중요한 치료 과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주요한 가치와 이를 향해 가는 전념 행동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가치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의 질(quality)입니다. '가치'란 마치 밤바다에서 배를 저어갈 때 바라보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밤바다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모호함의 연속입니다. 이런 밤바다에서 배를 저어갈 때 방향을 안내하는 등대가 바로 가치입니다. 이렇게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행동 방향을 나타내는 가치는 수용전념치료의 핵심 치료 변인이며, 이 가치 명료화 작업을 통해 불안이나 걱정 또는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그곳을 향해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용전념치료는 '현존과 목적', '호기심 가득하게 마주하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 역경을 마주하고, 고통을 내려놓으며, 삶에서 진정으로 살았던 순간들과 사랑의 영혼을 담아 무언가를 했던 순간들을 재발견하게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가치와 함께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서 슬픔, 두려움, 분노도 있지만 기쁨과 사랑, 경이로움도 많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용전념치료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우리가 역경과 마주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친절하기, 자신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보냄으로써 내적 충만감을 확보하기, 둘째, 역경의 자욱한 안개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을 진솔하게 말해봄으로써 말할 수 없는 힘든 정서를 알아차리고 허용하여 우리의 현존을 확장해 나가기, 셋째, 깨져 버린 현실 속에서도 가치에 닻을 내리고 삶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바를 위한 행동목록을 실천하기, 넷째 의미와 목적이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자신 그리고 세상과의 진정한 화해와 용서에 대해 말하기, 다섯째, 우리의 특권과 자신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며 삶에 대한 감사하기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 감사한다면 이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 더 멀리, 그리고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새로운 방향의 가능성을 열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역경의 순간에도 서두를 필요가 없고, 마주하는 것을 창문이라 생각하며 창을 열 때마다 그 경치를 감상하세요. 충족감은 마주하는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 연재 글을 읽으면서 더러 충분히 이해가 안 되거나 지루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글 덴풍상

참고문헌:
The Reality Slap: How To Find Fulfilment When Life Hurts, by Russ Harris
꼭 알고 싶은 수용-전념치료의 모든 것, 이선영 지음

1. 정신장애 및 이상심리 1부 :
우울장애, 불안장애
2. 정신장애 및 이상심리 2부 :
ADHD, 치매 / 심리평가 소개
3. 심리치료, 새로운 통찰

열린소리

교회마당에
파라솔과 놀이터 만들어 주세요

새교우 축하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세요

당회 내용
주보에 올려 주세요

교회 중직자들이
금요기도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세미나 열어주세요

사도행전 특히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을
강해 설교로 주일 예배때
시리즈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당 로비와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열린소리함에 적극적인 의견 넣어주세요.

문화교실 강좌 안내
(2024년 2분기)

- 수업 기간 : 4월 ~ 6월, 12회 수업
- 수강 신청 기간 : 3월 17일 ~ 4월 6일
- 수업료 : 60,000원

강좌명	장소	시간	강사명
오카리나1	본당 지하1층 브루엔홀	주일 11시	김연자 권사님
오카리나2	본당 지하2층 103호	주일 11시	방은령 권사님
드 럼	기념관 4층 정류아트홀	주일 11시	최영민 집사님
바이올린	본당 지하2층 102호	주일 11시	윤미둘 집사님
플루트	본당 지하1층 정류홀	주일 11시	유규혜 집사님
기 타	본당 5층 사무실	주일 1시	김대영 집사님
트럼펫	본당 지하2층 206호	주일 11시	고대형 선생님
영어회화1	본당 지하2층 202호	토 10시	Katebe
영어회화2	본당 지하2층 206호	토 10시	Joy
영어회화3	본당 지하2층 202호	주일 1시	Tionge
영어회화4 (학생)	기념관 초등부실	토 11시	Joy
영어회화5 (학생)	기념관 초등부실	주일 1시	Katebe
동화로 배우는 기초영어	본당 지하2층 204호	주일 11시 30분	조정득 집사님
요한복음 영어로 배우기	본당 지하2층 204호	주일 1시	이은정 권사님
목 공	본당 지하2층 207호	목 19~22시	이경훈 집사님
베이직 컷 헤어 교실	본당 지하2층 207호	주일 12시 50분	권정순 집사님
가죽공예	본당 지하2층 207호	주일 11시 30분	배윤정 선생님

※ '영어회화'는 곽명희 집사님(010-8596-7226)과 의논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정기예배 및 집회 시간

집회별		시 간	장 소
주일 낮 예배	1부	오전 7:30	대예배실
	2부	오전 9:30	대예배실
	3부	오전 11:30	대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오후 3:00	대예배실
수요낮예배		오전 10:30	대예배실
수요밤예배		오후 7:30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오전 5:30	100주년 기념관(4층)
금요기도회		오후 8:00	본당지하아담스홀
구 역 장 회		(화) 오전10:00	본당지하아담스홀

기관명	시 간	장 소
영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2층)
유 아 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3층)
유 치 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3층)
초등1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6층)
초등2부	오전 9:30	100주년 기념관(7층)
초등3부	오전 11:30	100주년 기념관(4층)
중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아담스홀
고 등 부	오전 9:30	본당지하베어드홀
청년1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년2부	오후 2:00	본당지하아담스홀
청년3부	오후 1:20	100주년 기념관(4층)
장 년 부	오전 10:40	대예배실
새가족부	오전 10:40	새가족부실(본당2층)

방송설교

극동방송 라디오(FM 91.9)
예배실황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 7시 40분까지

CBS방송설교
매주 주일 오전 8시 30분 ~ 8시 50분

기쁨과 행복을 만들고 은혜를 나누는 홍보출판부

물댄동산 제105호 원고 모집안내

원고 내용

삶과 신앙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하고 느낀 일, 행사 참관기, 간증, 부서활동보고 등 전 교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시, 수필 형식의 글

제일 논단 기독교, 교회, 신앙과 관련된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글 (필요시 참고문헌 기입)

기 타 「물댄동산」에 게재하고 싶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글, 사진, 그림 등

원고 분량

A4 1페이지 이내, 바탕체, 글자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상하 여백 15, 좌우 여백 20

접수 마감

2024년 5월 25일 (토) 까지
* 원고마감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 출 처

E-mail : fch_pub@naver.com

네이버 메일로 원고 접수
또는 홍보출판부 (본당 4층), 행정실
카톡접수 : 010-7232-6188 (안지현 집사)

유의 사항

원고 접수 시, 필자의 프로필 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원고 관련 사진이 있을 경우, 함께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접수시 필자의 성함 및 직분, 제목,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바랍니다.
원활한 출판을 위하여 원고의 일부 편집 및 교정 ·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부 심의를 거쳐 다음 호에 게재되거나, 출간 목적에 부적절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표어 |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God Cure, We Care!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창조 세계에 생명을 공급하게 하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구제일교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EGU

Since 1893. 4. 2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50 (동산동)
Tel : 053-253-2615~7 Fax : 053-253-2618
E-mail : ch2532615@naver.com www.firstch.org

물댄동산은 대구제일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